

사회

시민들엔 엄격 자신들엔 관대 '이중잣대'

공무원들, 기초질서는 남의 일?

광주 5개 구청 지도반 편성 을 10월까지 77만 건 단속

공무원들 무단횡단·핑크 투기·차 요일제 위반 '다반사'

광주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15 광주 하계U대회'를 앞두고 각 구청이 앞다퉀 기초질서지킴이 지도반을 편성, 집중 단속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단속 공무원들이 무단횡단은 물론, 담배꽂초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심을 사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광주시 동구와 서구, 북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의 청사와 주차장·청사 앞 횡단보도 등에서 공무원들의 기초질서 준수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참여도는 매우 저조했다.

동구와 서구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주로 청사 맞은편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많았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건너는 직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청 주차장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한 직원 차량이 상당수 주차돼 있었다.

북구는 직원들이 청사 양쪽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돌려 모아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꽂초를 마구 던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반면 광주시 5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기초질서 지도반을 편성해 모두 76만9천여건을 단속했다. 구청들이 불법광고물·쓰

레기 무단투기·노상 적치물 등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단속을 펼친 것은 단속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상사급비 1억4천만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는 9천여만원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단속 주체인 공무원들은 정작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 위주의 단속을 1년간이나 벌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이모(32·광주시 남구 노대동) 씨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선진 시민

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실적의 도구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시민들만 잘 지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모 구청 관계자는 "상사급비를 받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집중 단속에 나섰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자체 계도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부터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앞길.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청사 맞은편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밀다 사고... 차주 책임은?

아파트 주차장 40대女 사망...유가족들 "교통사고"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차주(車主)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핸드브레이크를 당겨놓지 않은 1t 화물차와 담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가 나섰다.

27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경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여·40)씨가 1t 화물차와 주차장 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손에 차량 키를 쥔 상태였으며, 1t 화물차는 애초 주차된 곳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멈춰서 있었다.

여가 자기 체중의 세배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혼자 힘으로 차량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유가족들은 "차량 핸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 노면의 경사도 등을 조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책임 소재를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최근 법원 판례는 핸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의 경우 이를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사고 발생시 책임의 상당부분을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묻는 경우가 많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실종 20대女 살해사건

용의자는 택시 운전사

서부경찰, 5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영업용 택시 운전사 김모(55)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32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오피스텔 앞길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모 통신회사 직원 K(여·26)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인근 도로에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K씨를 서구 화정동 J아파트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광주대 앞길과 화순 영남삼거리, 나주 다도면 중장터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 김씨가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시신 유기장소 주변 도로를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용 택시에 장착된 운행기록장치와 위성추적장치를 분석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숨진 K씨를 태운 적이 없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K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30분경 서구 치평동에 사는 P(여·26)씨의 집에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연락이 두절된 뒤 이를 만난 22일 오전 11시20분경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행기자 golee@

나원침 (7990) 김중두



청호즘 마신 50대 숨져

25일 밤 10시40분경 광주시 동구 모 병원에서 췌의 일종인 청호즘을 술에 타서 마신 뒤 병원치료를 받은 김모(52)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장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지난 5일 청호즘을 탄 술을 한 잔 마신 뒤 신장, 치료를 받아왔다. /김형호기자 khh@

물건 빼 달아난 동거녀 폭행하다...

쌍다발

〇...동거하던 애인이 물품을 훔쳐 달아나자 불협아 감금·폭행한 뒤 음주상태에서 애인의 절도사실을 신고하려고 차를 몰고 가다 경찰서 정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 2명이 경찰서행.

〇...광주서부경찰은 27일 이모(3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후배인 박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〇...이씨는 박씨와 함께 지난 25일 새벽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여·30)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40여분 간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

〇...이씨는 김씨가 최근 원룸에서 가전제품 등을 훔쳐 사라지자 애인을 폭행했는데, 경찰에서 "김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던 중 벌금 수배 중인 후배가 만류하자 뿌리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

중국인 유학생 신용카드 위조·유통

광주지검, 2명 기소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 철)는 27일 컴퓨터와 복제기로 신용카드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김모(28)씨와 A(여·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또 광주 모 대학에 유학온 뒤 제적당해 불법체류 중인 위조 총책 고모(26)씨를 지명수배하고, 위조 신용카드를 산 내국인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A씨로부터 위조 프로그램과 복제기계를 300만원에, 총책 고씨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1천500만원에 각각 사들인 뒤 신용카드 수십 장을 위조해 1매당 100만원씩, 모두 5매(500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해킹 등을 통해 수집한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중국 총책으로부터 전송받아 범행에 사용했으며, 이씨의 경우 구매한 위조 카드로 카메라를 사는 등 2차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

'배달사고 돈 상자' 구의원 금명 소환

구의원 "음해 고소하겠다"

광주시 남구의회 한 의원에게 보내려던 돈 상자가 옆집으로 잘못 배달된 사건(광주일보 25·26일자 6면·1면)과 관련, 경찰이 해당 의원을 이번 주 말께 소환키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A의원은 "돈을 보낸 사람은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로, (누군가) 나를 음해하는 것"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A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친

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돈 상자를 건네려한 이모(여·52)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도 일반적으로 이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요청이 있으면 경찰에 출석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이씨로부터 돈상자를 배달받은 공무원 B(여·35·7급)씨 역시 "귀갓길에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돈 상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이튿날 이씨를 집으로 불러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장수바탕장어' (Longevity Bathing Eel)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an and a woman,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Advertisement for '명암매력한우' (Myeong-am Maeryeok Hanwoo) featuring images of beef and text promoting the quality and taste of the meat.